

한해를 보내면서...



장규호


사)한국오리협회 고문

매년 한 해가 끝나갈 때는 의례적으로 多事多難(다사다난)했던 한 해라던가 하는 수식어가 등장했지만 2006년도 한 해는 우리에게 있어 협회 창립 이후로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었고 말도 많았던, 그야말로 多事多難(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중 하나가 한국오리협회와 체리밸리사와의 M.O.U (양해각서)교환. 이것이야말로 오리업계의 역사를 새로 쓰는 시발점이다. 업계 초창기에 某(영국)회사의 오리만 빼놓고는 잡오리로 통칭되던 시기가 있었다. 당시는 PS만 해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나무라고 보던 시기이다. 그런데 이제 PS를 넘어 GPS 농장을 운영한다고 하니 감개무량 한 일이다. 이에 따라 초생추 비용이 절감되며 생산성이 올라갈 테니 업계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무튼 GPS 도입에 따라 우리의 오리산업의 경쟁력은 가일층 강화될 것이다.

지난 달 오리마을 신간 안내에 보니 배려라는 책이 있어 서점에 가서 책을 사 보았다.

평소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진인사 대천명, 易地思之(역지사지)가 있는데 배려라는 뜻이 易地思之(역지사지)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마음에 와 닿았다. 혹 못 보신 분이 있으면 꼭 봤으면 한다. 배려에 실린 내용 중 몇 가지를 인용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C.E.O 들의 필독서는 경제학 관련 서적일 것 같지만 예상 외로 論語(논어)라는 것 이고, 논어의 키워드는 仁(인)이다. 仁(인)이란 글자는 사람 人(인) 변에 두 二(이)



가 결합된 것이다.


사람이 둘만 모여도 서로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곧 상대방의 입장에서 璫(후)하는 마음씨가 필요하다. 배려는 경쟁까지도 넘어설 수 있다.

경쟁자의 관점에서 보고 경쟁자를 앞지르고 마침내 경쟁자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한다.

이것이 주된 내용인데 “입장 바꿔 생각하기”란 것이 명칭한 好人(호인)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사는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해 주는 것이다.

회합(오리협회)에 있어 느끼는 점이 많다. 흡사 전쟁터에 간 것 같은 착각을 할 정도인데, 물론 자기가 하고 있는 현업에 중대한 영향을 줄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어 그러는 것이겠지만, 초등학교 학생 같으면 “배려를 10번 씩 읽고 독후감을 써와!” 할 수도 없고 난감한 일이다. 오리업계는 지금까지 전 축종을 망라해서 제일 성장이 뛰어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렇다면 이에 걸맞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한결 성숙된 자세로 활약하는 오리업계 종사자들의 모습을 그려 본다.

어제 뉴스에서 전북 익산에서 발생된 A.I는 진성으로 판명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처음 겪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응은 성숙되어 있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오리의 대일 수출이 막혀 해당업체는 물론 오리산업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니, 우리는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해야하는 것인지 안타깝기만 하다.



아람 F/S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3-14 성보빌딩 4층
전화 : 031-230-3040 팩스 : 031-230-3042